



현대물리, 불가능에 마침표를 찍다

김영태 지음

상대성 이론·우주론 탄생 이야기

1900년 현대물리학이 태동한 이래 지난 1세기에 걸쳐 세상은 혁명적으로 변했다. 점단 스마트폰이 일상을 바꾸었고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과 인공위성이 현실이 되었다.

김영태 아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펴낸 '현대물리 불가능에 마침표를 찍다'는 상상 이상의 현실을 만든 물리학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평소 학생들에게 '공식 없는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저자는 상식을 의심하고 불가능에 도전했던 물리학자들의 업적을 파고든다.

책에 거론된 물리학자들은 기존의 상식과 편견에 도전장을 내밀며 새로운 생각을 펼쳤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우주론, 원자핵 및 소립자에 대한 물리학, 나노과학, 카오스 등 놀라운 이론이 탄생하게 된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된다.

〈다르세상·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우리가 물어버린 것들

앨런 에스킨스 지음

변호사가 쓴 최고 스티러블

2015년 에드거 어워드 최고의 데뷔작이자 2014년 최고의 미스터리 데뷔작으로 꼽히는 '우리가 물어버린 것들'은 형사사건 변호사로 20년 넘게 변호사 경력을 쌓은 앨런 에스킨스의 장편소설이다. 서스펜스 매거진이 선정한 2014년 최고의 책답게 작품은 물어두었던 진실들을 파헤쳐나가는 스티러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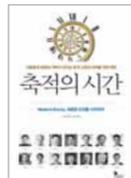
주인공 조 텔버트는 알코올중독에 조울증 환자인 어머니와 자폐증이 있는 동생으로부터 탈출해 대학으로 도망쳤다는 죄책감을 안고 산다. 전기문을 쓰는 과정을 위해 요양원을 찾아가는 운명에 이끌리듯 한 남자를 만난다. 30년 전 아이집 소녀를 살해하고 창고에서 시신을 불태운 잔인한 살인자 칼 아이버슨이라는 사내다. 조는 칼이 털어놓는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고, 이웃의 매력적인 여대생 라일라와 함께 진실을 추적하기로 한다.

〈들녘·1만4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한국산업의 미래를 여는 키워드 '창조적 축적'

축적의 시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지음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어라 뛰어야 한다."

동화작가 루이스 캐럴의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말이다. 주인공 앨리스가 거울 나라에 들어가 모험을 펼치다가 붉은 여왕에게서 듣는 말이다. 거울 나라는 주변이 앞으로 움직이는 세계다. 멈춰 있으면 뒤로 처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라도 뛰어야 한다.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어라 뛰어야 한다"는 충고는 동화 속 주인공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작금의 한국 상황이 그렇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적인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후발 주자라고 생각했던 거대한 중국도 이미 뛰는 대열에 동참했다.



서울공대 26명의 교수들은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창조적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난제들을 극복해가고 있다. 한국의 모방과 추격 중심의 성장 체질로는 뒤쳐질 수밖에 없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창의적인 역량을 결집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도전과 과제를 정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나왔다.

'서울공대 26명의 석학이 던지는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언'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쓰여졌다.

각 전문가는 1:1 대담에서 분야별로 해법(통찰)을 제시했는데, 한국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들의 견해는 '축적'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사전적 의미의 '축적'은 "지식, 자금, 경험 등을 모아 쌓음 또는 그 쌓여진 것"을 일컫는다.

전문가들은 한국 산업에 "창조적 개념설계의 역량이 없다"는 것과 "축적된 경험이 없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멘토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개념설계(conceptual design)' 역량의 부재는 한마디로 축적된 경험의 부재를 뜻한다.

"제품개발이 되었건,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건 산업계가 풀어야 할 과제가 있을 때, 문제의 속성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창의적으로 해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량으로서, 실행 역량이 필요한 단계보다 더 선행 단계에서 요구되는 창조적 역량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문가들은 창조적 축적을 위해 열린 자세와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나아가 실패를 용인하며, 경험을 축적하고자 노

력하는 조직과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인센티브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또한 그동안의 성공 방정식, 일터면 단 기간 집중적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초기에 목표를 달성하던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유량(flow) 중심이 아닌 저장(stock) 중심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멘토들이 제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선진국의 비밀은 제조업의 경쟁력에 있다', '반도체의 성공 경험은 모든 사업에서 다 통하는 것은 아니다',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는 시기가 있다. 놓치면 따라잡지 못한다', '기초가 없는 융합은 거짓말이다' 등 귀담아 들어야 할 고언이다.

프로젝트 책임을 맡은 이정동(산공공학과) 교수는 축적지향의 사회 패러다임을 주장한다.

"오랜 산업 역사를 통해 경험지식을 축적해온 산업선진국, 그리고 넓은 내수시장이라는 공간의 이점을 활용해 경험지식의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우리를 추월하기 시작한 중국에 맞서, 축적의 시간을 벌기 위한 우리의 고유한 전략적 노력은 산업계의 변화와 노력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늦었지만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지식노마드·2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세자를 죽인 영조는 과연 개혁군주였는가



영조와 사도

김수지 지음

역사상 가장 불우하고 통탄의 부자 관계를 꼽으라면 영조와 사도세자일 것이다. 영조에게는 그의 치적과는 별개로 아들을 질투한 아버지, 아들을 죽인 잔혹한 군주라는 평가가 따른다.

미치광이 왕자의 당연한 최후일까, 피우지도 못한 채 꺾인 성군의 싸이였을까. 300여 년 전 아버지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한 조선의 세자를 다룬 책이 나왔

다. '위대한 군주와 잔혹한 아버지 사이, 탕평의 역설을 말하다'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영조가 아닌 사도세자를 옹호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동안 '대비, 왕 위의 여자'를 통해 당당하게 살아간 여성들의 흔적을 추적했던 작가 김수지가 펴낸 '영조와 사도'는 영조가 과연 개혁 군주인지를 파고든다. 한마디로 책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도세자의 '역사 변호인'이다.

책은 왕이 왕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데는 정치적 환경과 치밀한 정략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소론 포용 탕평책이 차츰 무너져 간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밝힌 저자의 말에서 보듯 소론이 힘이 빠진 이후로는 강화된 왕권을 마음껏 누릴 수

없었고 전소론 성향의 세자 역시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노론 백파가 부자지간을 이간질하게 된 이유다.

또한 저자는 영조를 평생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었다고 단언한다. 권력중독에 빠져 아들을 죽이고 마는 '못남 남자'로 규정한다. 평생 두 개의 아킬레스건 '출생의 비밀'과 '경종 독살설'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역사는 늘 승자독식의 영역이다. 역사를 입맛대로 비워 쓸 수 있었던 개혁자들의 주장이 정설처럼 퍼져 있고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된다. 책은 참혹하게 살해당한 청년 세자의 한을 풀어주는 한 편의 저자의 말에서 보듯 소론이 힘이 빠진 이후로는 강화된 왕권을 마음껏 누릴 수

프랑스 건축의 정수 고딕양식



건축 강의 1~4

외젠 비올레르뒤크 지음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아미앵과 랭스 대성당 등의 복원을 책임졌던 건축가 외젠 비올레르뒤크의 건축 사상을 담은 '건축 강의'(총 4권)가 출간됐다.

비올레르뒤크는 19세기 중·후반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건축가이자 건축이론가로, 아카데미 체제의 독점적 기득권과 그 위에서 이뤄지던

에콜 데 보자르 교육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앞장서 요구한 혁신주의자였다.

책은 저자가 앞서 펴낸 '11~16세기 프랑스 건축 이론 사전'에서 다룬 프랑스 고딕 건축을 이루는 개념들을 포괄적으로 서양 건축의 위대한 과거와 프랑스 건축의 미래에 대한 거시적 논의를 펼쳐낸다.

고딕 양식을 프랑스 건축의 정수로 평가하면서 이같은 평가의 근거를 이전 시대의 건축 전통에서 찾고, 다시 이를 당대 프랑스 건축이 처한 문제를 확인하고 타개하기 위한 열쇠로 제시한다.

〈이브넷·각권 2만3000~2만7000원〉
/이보림기자bora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남가

대산프리모가발

금리 부담은 낮게, 대출은 쉽게!
광주문화신협, 북광주신협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담보감정 평가수수료 면제

<p>아파트 담보대출(특별금리상당)</p> <p>최저금리 적용으로 감정가 최고 80%까지 가능</p> <p>추가 신용대출 가능</p>	<p>상가 담보대출</p> <p>빌딩, 단독상가, 아파트상가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신용에 따라 상가대출+신용대출까지~</p> <p>대출금리: 특별 우대금리 · 대출한도: 최고 50억</p>
<p>자영업자와 직장인을 위한 신용대출</p> <p>간단한 대출 절차로 최고 7천만원까지 가능</p>	<p>정부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p> <p>사업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생계자금 최고 1천만원</p>
<p>자영업자(무담보/무보증) 승승장구론</p> <p>개인(창업) · 임대사업장 최대 2천만원 자금대출 · 자가사업장 최대 3천만원</p> <p>운영자금대출 / 최대한도 7천만원</p>	<p>아파트 임대보증금대출</p> <p>전세 보증금 최고 80%까지 가능</p>

블루밍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

북광주신협 일곡지점 572-8167